

2020 서울 글로벌 포토저널리즘 사진전 개요

서울시는 I·SEOUL·U 도시브랜드 선포 5주년을 맞아 세계 주요 언론매체 포토저널리스트들이 코로나19 현장을 최전선에서 취재한 사진전인 『2020 서울 글로벌 포토저널리즘 사진전: 2020 서울, 다시 품은 희망』을 오는 10월 20일(화)부터 31일(토)까지 12일간 서울도서관 외벽과 상암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상암문화광장 인근)에서 개최합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진전문 뉴스통신사인 펜타프레스가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인류역사상 유례없던 전염병이자 세계를 단절시킨 세계 각국의 생생한 코로나19 현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도시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전 세계에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혼돈, 좌절, 용기, 희망"을 주제로 한 메인전시와 함께 서울을 포함 뉴욕, 런던, 도쿄, 리우데자네이루, 요하네스버그 등 세계 6개 도시에서 코로나19와 용기 있게 싸우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담은 피쳐사진으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전 공식 홈페이지(<https://english.seoul.go.kr/SIPE2020>)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시명** : 서울 글로벌 포토저널리즘 사진전 『2020 서울, 다시 품은 희망』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펜타프레스

- **전시주제** : 혼돈, 좌절, 용기, 희망

- **개최기간**

- 오프라인 전시 : 2020.10.20(화) - 10.31(토) (12일간)

- 온라인 전시 : 2020.10.20(화) - 12.20(일) (2개월간)

- **개최장소**

- 오프라인 전시 : 서울도서관 외벽, 상암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 * 상암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는 상암문화광장 인근에 위치

- 온라인 전시 : <https://english.seoul.go.kr/SIPE2020>

- * 360° 가상 갤러리: 서울도서관 외벽,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실경 활용

- **전시구성**

- 메인전시 : "혼돈, 좌절, 용기, 희망" 주제별 전시

- 특별전시 : 서울, 뉴욕, 런던, 도쿄, 리우데자네이루, 요하네스버그 등 세계 6개 도시 전시